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시작하는 힘찬 하루!

오미란 배아따

부산 메리놀병원 호스피스자원봉사자 팀장



말씀 봉사로 시작된 성당 활동은 퇴직 후 호스피스교육을 받고 메리놀병원 호스피스 문을 두드린 7년 전 일입니다. 기대와 두려움과 설렘으로 첫 병실 문을 조심스레 열고 만난 환자는 부처님을 모시는 위암 환자였습니다. 암환자라는 선입견이 지워질 만큼 의자에 앉아서 먼저 눈인사를 건네며 지켜봐 달라고, 고맙다고 하셨지요. 딸이 없어서 서운하기는 하나 자부를 딸처럼 서로 배려하며 무녀독남의 아들과 친손주를 사랑하시는 다복한 분이셨습니다. 순간 49세에 귀천하신 엄마한테 못 느낀 인자한 모습과 노년의 삶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분이 성모병원 이동 후 병원을 방문했을 때 무척 반가워하시는 모습 안에 비치는 쓸쓸함은 역시 삶은 혼자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얼마 후 성모병원에서 임종하신 뒤 가족과 통화를 하면서 첫 환자와 좋은 교감은 호스피스 봉사자로서 보람과 용기의 경험이었습니다.

호스피스 봉사자는 환자에서 끝남이 아니라 사별가족의 슬픔도 함께하고 환자와 불편한 가족들은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화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함도 그때 알았습니다.

남편과 사별 후 성장한 아들 둘을 혼자 양육하면서 호스피스 병동에 오신 자매님은 큰아들과 함께 의류업을 하시고 작은아들은 기업에 근무하는 냉담 신자였습니다. 작은아들과 대화의 시간이 있어 모친이 다니신 중앙성당으로 연

결하여 냉담을 풀고 임종하셔서 호스피스 담당 수녀님과 의논하여 메리놀병원 장례식과 중앙성당에서 장례미사를 드린 뒤 엄마를 보내드린 아들들도 새 신자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환자와 직접 접촉은 없어도 환자들이 잠시나마 미술 프로그램과 공예 프로그램을 통해 거기에 집중하며 고통을 잊고 작품 완성 후 기뻐하실 때는 위로의 말보다 칭찬과 즐거움을 표현해 드림에서 잠시나마 비치는 생동감 있는 모습에 봉사자들이 오히려 위로받기도 했습니다.

봉사하면서 준 것 보다 얻은 게 더 많아 장례미사나 연도 때 간절한 마음의 기도가 되고 묵상할 때는 암 환자를 위한 기도가 많이 드려지고 나를 돌아보게 하는 습관도 은총으로 받은 선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혼, 출산, 직장생활로 친절 도움 없이 홀로 서기 할 즈음 세상적인 가치와 고통으로 방황하며 힘든 시기에 재혼하신 친정아버지에 대한 섭섭함에 대화 없이 단절된 삶이었을 때, 전혀 안면도 없는 저에게 다가와 새로운 삶과 주님과 성모님을 알게 하시며 한없는 사랑의 기쁨을 알게 하고 친정엄마 역할까지 해주시다 세례 대모님이 되어주신 이아형(로사리아)님, 무조건 칭찬과 격려로 나를 위로해 주시어 편하게 기대며 하소연해도 다 받아 주신 이영자 카타리나 견진 대모님,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사랑과 섬세한 역사였음을 늦게서야 알았습니다.

호스피스 봉사를 하면서 눈이 뜨여 간암으로 돌아가신 모친을 기억하며 암 환자에 대

한 인식 부족과 의료혜택의 미비함을 새삼 알게 되고, 호스피스병동에 있는 환자는 주님 축복을 가장 많이 받는 분일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호스피스병동은 가족들과 환자에게 죽음 준비 과정을 알게 하고 새로운 만남을 이어주는 과정에서 경건한 죽음과 영적인 성장을 돕는 곳이기에 호스피스 전문교육을 받은 의사,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담당 수녀님 모두가 환자를 위하여 존재된 사람처럼 눈물과 고통과 아픔을 함께하며, 임상사목교육(CPE) 2023년 가을 세미나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동반자로서의 길임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임상사목교육을 수강하여 열정과 자질 있는 봉사자로 책임감 있고 성실한 봉사자로 주님의 십자가를 묵묵히 짊어지며 살아가려는 작은 각오도 해봅니다. 갈수록 깨닫는 주님의 크신 은총 속에서 호스피스 봉사자 회원 마당을 통하여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내려다보고 계시는 이로사리아 대모님, 이카타리나 대모님을 통해 엄마의 손길을 느끼며 성모님과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아낌없는 사랑을 보여 주신 두 분을 위한 기도 시간도 가져봅니다. 천국에서 저의 기도 듣고 계시지요? 저를 바로 서게 하시고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하시며 여기 호스피스 봉사자로 거듭 태어나게 하셨으니, 저에게 보여주신 그 신앙의 모습대로 저도 주변 사람들과 가족과 내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 갚아드리며 함께 만나는 그날까지 기도드릴게요.

주님, 저를 이곳 메리놀병원 호스피스 봉사자로 인도하시어 부족함을 알게 하며 고통을 통하여 희망의 불꽃이 되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은총의 시간 속에서 깨어 주님을 기다리는 성실한 종으로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주님, 메리놀병원으로 가는 날은 몸과 마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환자를 만나는 곳에서 눈빛으로라도 인사를 나

누면서 저들에게 필요한 손길이 무엇인가를 주님께 청하여 봅니다.

주님, 대화는 하지 않았지만, 침상 발치에서 차가운 발을 가볍게 마사지하며 환자 눈빛을 볼 때 아픔을 함께 공유하며 보듬어주고 받아주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을 나누는 환자들을 만나길 희망합니다.

주님, 봄날의 따스한 햇빛과 꽃향기를 맡게 하며 오늘도 깨어 있음에 감사와 행복의 여운을 기지개 켜며 저 또한 죽음의 과정을 거룩하게 맞이하여 부활의 희망을 가지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님의 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풍족한 달란트를 주셨으니, 나누면서 겸손한 마음이 더욱 커지고 평화와 행복한 시간을 잠시나마 느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월이 흘러 나의 건강에 상실감과 무력감으로 자신감이 점차 희석되어 희망이 사라질 때 눈에 보이는 떡구름보다 그 속에 머물고 있는 빛나는 태양을 잊지 않고 희망을 바라보게 하소서. 노를 저어 바다를 건너가는 사람은 물 위의 파도를 보기보다 하늘을 쳐다본다고 합니다.

「주님께 청하는 것이 하나 있어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우러러보고 그분 궁전을 눈여겨보는 것이라네.」 -시편 27,4-

「너희는 내 얼굴을 찾아라.」 하신 당신을 제가 생각합니다.

주님 제가 당신 얼굴을 찾고 있습니다. 당신 얼굴을 제게서 감추지 마시고 분노하며 당신 종을 물리치지 마소서.

당신은 저의 도움이십니다.

제 구원의 하느님, 저를 내쫓지 마소서. 저를 버리지 마소서.」 -시편 27,8-